

발행인: 채희락
편집인: 유은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07년 3월 15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유은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880-6094
e-mail: ejyoo@snu.ac.kr

1. 회장 인사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만 해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한풀 꺾이며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학회는 80년대 초에 만들어져 25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언어와 정보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학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이런 훌륭한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학회는, 다른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회원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학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와 현 임원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월례 발표회 모임에 변화를 기하기 위해 기존의 기획 논문과 일반 논문 이외에 “FISA 특강” 시리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요 이론이나 현상에 대해 기본 사항(Fundamentals)과 논점(Issues)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현황(the State-of-the-Art)도 같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대학원생들과 기존 학자들 모두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입 회원 확보와 재정 확충을 위해 재무이사직을 신설했습니다. 개인 및 기관 회원을 늘려 회비 수입을 증대하고 기타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학회에서 치러야 할 주요 행사는 PACLIC 21입니다. 한국과 일본, 홍콩 및 중국 등을 돌아 가면서 매년 개최해 오던 국제 학술대회를 올해에는 11월 초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회 주관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PACLIC 준비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년 봄/여름에 열고 있는 연례 학술대회를 이번에는 5월에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PACLIC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초청연사도 일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Harry Bunt 교수(Tilburg Univ.)가 초청을 수락했으며 Jerry Hobbs 교수(Univ. of Southern California)는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저와 임원진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학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회지 “언어와 정보” 및 국제 학술대회 PACLIC에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 올해 첫 월례 발표회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2일
채희락 드림

2. 2007년 1학기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 2007년 2월 13일과 3월 8일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학회 임원진과 학회 발전 방안 등 이 논의되었습니다.
- ▶ 3년 임기의 새로운 편집위원장으로 윤영은 교수님(이화여대)을 선출하였습니다.
- ▶ 새로운 이사진 및 감사 2인을 선출하였습니다. 명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새 학회 조직

▶ 이사진 명단

회장: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무이사: 유은정 (서울대학교)
편집위원장: 윤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이사: 류병래 (충남대학교), 전종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이사: 홍민표 (명지대학교)
홍보이사: 신효필 (서울대학교), 김미숙 (상지대학교), 윤애선 (부산대학교)
섭외이사: 위혜경 (한국사이버대학교), 양재형 (강남대학교), 이한정 (성균관대학교)
학술지 국제화 추진위원장: 김종복 (경희대학교)
의미-화용론 분야 용어 표준화 추진위원장: 송민영 (동국대학교)

▶ 감사: 조세연 (강원대학교), 이남근 (조선대학교)

4.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윤영은 교수 (yeyoon@ewha.ac.kr)
-------	-------------------------------------------------------------------------------------

다음 학회지는 2007년 6월에 출판될 예정이오니,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4월 15일까지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게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제출에 관해 논의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윤영은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2006년 8월에 있었던 평의회원회의 결정과 공고에 따라 올해부터는 논문 게재료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 연구비 수혜 논문: 30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20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50,000원

5. PACLIC 21 안내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학회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리게 될 제21차 PACLIC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에 대해 다음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paclic21.sn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모집 공고문 (축약본)

Call for Papers

The 21st PACLIC, organized under the auspices of the PACLIC Steering Committee, will be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Korea, on **November 1-3, 2007**. It will be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We invite prospective authors to submit abridged versions of original and unpublished papers on all aspects of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Possible topic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1) language, (2) information, and (3) computation. Priority will be given to papers that are interdisciplinary and cover a wide range of languages in Asia. Outstanding papers will be considered as candidates for the best paper prize.

Abridged papers should not exceed 3,000 words including the bibliography. Author information should appear on a separate page with (1) the topic area of the paper: (language and/or information and/or computation), (2) the title of the paper, (3) name(s) of the author(s), (4) affiliation(s), (5) postal address(es), (6)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nd (7) the preference for oral or poster presentation. Accepted papers will be published in the Conference Proceedings. The deadline for paper submission is June 30, 2007. Paper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http://paclic21.snu.ac.kr>.

Important dates of PACLIC21:

- Due date for abridged paper submission:** June 30, 2007
Acceptance notification to authors: August 15, 2007
Due date for the camera-ready full paper: September 15, 2007
Due date for early registration: October 1, 2007

▶ 위원회 구성

Honorary Chair: Chu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ference Chairs:

Jae-Woong Choe (Korea University) [Chair]

Key-Sun Choi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chair]

Yasunari Harada (Waseda University) [Co-chair]

Program Committee:

Hee-Rahk Cha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ir]

Tingting He (Huazhong Normal University) [Co-chair]

Hui-ling Lai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Co-chair]

Kim Teng Lua (Chinese and Oriental Languages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Singapore) [Co-chair]

Kei Yosimoto (Tohoku University) [Co-chair]

Local Organizing Committee:

Youngchul J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

6.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2006년 8월에 있었던 평의회원회의 결정과 공고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연회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들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6년 9월 15일부터)

-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우체국 012336-01-001683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 ▶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 중에서 변경된 회칙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기납부금이 연회비 선납금으로 처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0세 미만인 평생회원 중에서 2003년 12월 이전에 평생회원이 된 회원의 평생회원으로서의 지위는 2006년 말에 종료된다 (4) 위 ... (2)항에 의해 그 지위가 종료되는 평생회원은 지위 종료 이전에 15만원을 납부함으로써 평생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5) 평생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되는 회원의 기납부금은 지위 종료 이후 연회비 선납금으로 간주된다.

-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2007년 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원: 권희상(한밭대), 김은주,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60세 미만)]

장범모(고려대), 박은주(세종대),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한국 IBM), 김용범(광운대), 김용환(양산대), 김종복(경희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영은(이화여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재웅(고려대),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신입회원: 권아영 (자국어인터넷컨소시엄, 준회원)
- ▶ 정회원: 윤승(ETRI), 이기황(연세대), 이영주(서울여대)
- ▶ 기관회원: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국회, 단국대, 명지대, 방통대, 부산대, 상명대(천안캠퍼스), 상지대, 세종대, 위덕대, 조선대, 한경대, 한양대(안산캠퍼스), 홍익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공지사항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달라진 회원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유은정(총무이사) ejyoo@snu.ac.kr)

9. 월례 논문발표회

2007년 3월 월례회부터 기존의 기획논문과 일반논문 발표 이외에 분야별 FISA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특강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3월 모임에는 류병래 (충남대) 교수님의 온톨로지 분야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남승호 (서울대) 교수님의 기획논문 발표와 김동성 (고려대), 홍문표 (성균관대) 교수님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류병래 연구이사(ryu@cnu.ac.kr)나 유은정 총무이사(ejyoo@snu.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7년 3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심리술어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남승호 (서울대학교)

이 논문은 한국어의 심리술어가 취하는 논항구조를 유형화하고, 이들 논항의 통사적 실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건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논항구조가 둘 이상의 통사적 실현을 허용하는 격교체 현상에 주목하여 두 교체구문 사이의 통사-의미적 상관성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1. 심리술어의 논항구조: 경험주를 주어로 갖는 것과 자극을 주어로 갖는 구조로 크게 나누고, 각각 비주어 논항이 여격이나 대격을 취하는 것들로 다시 분류한다. 경험주가 주어로 출현하는 경우에는 자극 논항 대신 착점 논항을 요구하는 심리술어들(‘냉정하다, 떳떳하다’ 등)이 있으며, ‘무섭다, 그림다’ 등은 경험주와 자극 논항이 모두 주격을 취하여 이중 주어 구조를 형성한다. 심리명사가 동사와 함께 복합 심리술어를 만드는 구문들(‘그리움이 밀려오다, 노여움을 사다’)도 논의에 포함한다.
2. 한국어 심리술어의 사건구조를 밝히기 위해 격교체 현상을 주목한다. 격교체 유형에 따라 심리술어를 크게 자극 논항의 격교체 구문과 경험주 논항의 격교체 구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격~여격] 교체와 [대격~사격] 교체로 세분한다. 자극 논항이 [주격~여격] 교체를 보이는 술어에는 ‘섭섭하다, 샘이 나다’ 등이 있고 (Cause~Theme alternation), [대격~사격] 교체를 보이는 술어에는 ‘괴로워하다, 걱정하다’ 등이 있으며 (Transitivity alternation), 경험주 논항이 [주격~여격] 교체를 보이는 술어에는 ‘지루하다, 무섭다’ (Causative~Inchoative alternation), 그리고 ‘어둡다, 익숙하다’의 대상 논항은 [주격~여격] 교체를 보인다. 한국어 심리술어의 격교체 양상은 영어의 심리술어 *cheer, delight* 등이 보이는 교체 양상과 사뭇 다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아래 (i)의 두 문장에서 화제화된 논항이 통사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ii)에서 두 여격 논항이 같은 의미역으로 해석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 (i) 가. 근이는 아버지가 무서웠다.
나. 김씨는 성공한 아들이 매우 믿음직스러웠다.
- (ii) 가. 할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무척 노하셨다.
나. 김 차장이 모든 부하직원들에게 냉정하다.

Ontology: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류병래 (충남대학교)

본 특강에서는 FISA(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특강시리즈의 기획의도에 따라 온톨로지(Ontology)의 기본 개념과 과거와 현재의 이슈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각 이슈들에 따른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 보고 응용 분야에 대한 개관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온톨로지(ontology)란 그리스어 'ontos' (being)과 'logos' (word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도 명시적인 기술 (A formal, explicit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이라고 정의된다 (Gruber (1993)). 온톨로지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느 특정 영역을 모형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유형, 개념, 속성, 관계 등의 공유 어휘 (A shared vocabulary, which can be used to model a domain)로 나타난다.

우선 여러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온톨로지를 철학적 전통과 인지과학 혹은 인공지능적 관점에서 그리고 언어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자연언어처리나 언어공학에서 온톨로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야를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때 논의에 포함되는 주제들로 정보검색, 정보추출, 텍스트 요약 그리고 의미적 유사성이나 낱말의미중의성 해소를 꼽을 수 있다. 개략적인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1) 온톨로지를 접근하는 시각: 철학, 인공지능, 언어학적 관점, (2) 온톨로지와 시맨틱 웹, (3) 온톨로지의 종류: 상위, 중위, 영역, 과제 온톨로지 등), [2] 온톨로지 구축, 검증 및 통합 ((1) 구축 개요 방법, (2) 구축 도구, (3) 온톨로지 검증, (4) 온톨로지 통합), [3] 온톨로지와 추론, [4] 온톨로지 응용, [5] 향후 과제

참고문헌

- Antoniou, G.& F. van Harmelen (2004). A Semantic Web Primer. Cambridge, MA: MIT Press.
- Baclawski, K. & T. Niu (2006). Ontologies for Bioinformatics. Cambridge, MA: MIT Press.
- Gruber , T. R. (1993). Toward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Ontologies Used for Knowledge Sharing. In: N. Guarino and R. Poli (eds.), Formal Ontology in Conceptual Analysis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ers (also available as Technical Report KSL 93-04, Knowledge Systems Laboratory, Stanford University).
- Nirenburg, S. & V. Raskin (2004). Ontological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 Tamma, V., S. Cranfield, T. W. Finin & S. Willmott (eds.) (2005). Ontologies for Agents: Theory and Experiences. Basel: Birkhäuser.
- Taniar, D.& J. W. Rahayu (eds.) (2006). Web Semantics and Ontology. London: Idea Group Publishing.
- Vossen, Piek (2003). Ontologies. In: R. Mitkov (ed.), The Oxford Handbook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제약기반의 의미 중의성 해소

김동성

고려대 언어정보 연구소

이 연구는 의미 중의성 해소에 대한 화자 직관과 연관된 계산 모델의 심리적, 전산적, 언어학적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산적 처리의 효율성이나 의미 중의성과 관련된 심리 모형을 검증 (Ide and Vernois 1998)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언어적 직관과 연관된 의미 중의성 해소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계산 모델의 심리적 연구는 확률 모델과 확률 추론 모델에 대한 직관의 일치성이 연구되었다(Lapata and Lascarides 2003, Lapata and Brew 2004). 이 연구는 언어 직관이 다양한 형태의 계산 모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계산 모델간의 관계성은 언어 직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다. 화자 직관 및 의미 중의성 해소의 전산적 연구에 대해서 본 연구가 선택한 모델은 논리 모델, 확률 모델, 확률 추론 모델이다. 각각의 세부 알고리즘 형태의 계산 모델로 논리

모델에서는 부울 논리에 바탕을 둔 부울 검색, 확률 모형에서는 최대우도추정치, 확률 추론 모형에서는 베이지안 확률 추론을 선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어휘는 100만어절에서 중의적 어의가 발견되는 단어 {배, 다리, 들다, 신부, 막, 맞다, 거리}의 7개 어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실험과 전산적 실험을 통해서 의미 중의성 해소의 작업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실험은 우선 코퍼스에서 기준에 따라 관련 문장을 추출하거나 단어를 추출하여서, 해당 문맥을 구성하고, 이를 실험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문맥에 적합한 어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산적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모델의 전산적 처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확률 추론이 재현율과 정확도가 가장 좋았으며, 논리 모델은 그 다음으로, 확률 모델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실험의 결과는 논리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우세하게 작용하였고, 논리 모델이 적용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확률 모델이 우세하게 작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확률 추론 모델이 의미 결정을 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논리 모델 >> 확률 모델 >> 확률 추론 모델'과 같은 의미 중의성 현상에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가능하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험에 주목하며,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언어 이론이 이런 실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약 기반에 근거한 최적성 이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모델간의 서열에 대한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되는데, 통계적 방식의 최적성 이론을 통해서 입증된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의 제약 조건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서열은 정보 이론적 방식으로 설명된다 (Keller and Asudeh 2002; Boersma and Hayes 2001; Jäger 2004, in press; Goldwater and Johnson 2003; Kagger 1999). 이러한 실험적 결과는 전산적 자동 의미 중의성 해소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한영 기술논문자동번역을 위한 한국어 통제언어(Controlled Language)의 설계에 대하여

홍문표 (성균관대)

통제언어(Controlled Language)란 원문의 가독성(Readability)과 번역성(Translatibility)을 높이기 위해 자연언어의 어휘와 문법을 제한한 일종의 하위언어를 말한다. 통제언어는 당초 제품 매뉴얼 등과 같은 기술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대표적인 통제언어로는 AECMA의 Simplified English가 있다. 통제언어는 원래의 고안취지대로 원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자동번역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과 밝혀졌다. 통제언어를 적용할 경우, Shirai의 1999년 연구에 따르면, 기계번역 성공률이 적용전보다 약 20%가 향상될 수 있음도 알려졌다.

한국어를 출발언어로 하는 기계번역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한-일 웹 자동번역시스템,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만이 상용화에 성공하였을 뿐이다. 한-영 자동번역시스템의 경우, 한국어 분석의 어려움으로 70%의 번역성공률을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이 80%에 가까운 번역성공률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특허라는 분야에 한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영 기술논문 자동번역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 통제언어의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술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 및 기계번역의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들의 유형을 찾아내어, 문서 작성단계에서 작성자들에게 해당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통제언어를 적용함으로써, 한-영 기술논문 자동번역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7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3/24 (토)	09:30 10:20	기획	남승호 (서울대)	심리술어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유은정 (서울대)	
	Coffee Break (10분)					
	10:30 11:50	*FISA 특강	류병래 (충남대)	Ontology: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0분)					
	12:00 12:30	일반	김동성 (고려대)	제약기반의 의미 증의성 해소		
12:30 13:00	일반	홍문표 (성균관대)	한영 기술논문자동번역을 위한 한국어 통제언어(Controlled Language)의 설계에 대하여			
04/21 (토)	09:30 10:20	기획	이한정 (성균관대)	Aspects of Iconicity and Economy in Korean Object Forms: An Experimental Study	류병래 (충남대)	
	Coffee Break (10분)					
	10:30 11:50	FISA 특강	박종철 (KAIST)	Combinatorial Categorical Grammar: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0분)					
	12:00 12:30	일반	이기황 (연세대)	TBA		
12:30 13:00	일반	이기용 (고려대)	Temporal Semantic Representation			
05월			연합 학술대회			
06/16 (토)	09:30 10:20	기획	고희정 (서울대)	Syntactic Edges and Linearization: Evidence from Scrambling	윤영은 (이화여대)	
	Coffee Break (10분)					
	10:30 11:50	FISA 특강	염재일 (홍익대)	Dynamic Semantics: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0분)					
	12:00 12:30	일반	이용훈 (충남대)	Implementation of Move in Computational Minimalism		
12:30 13:00	일반	신효필 (서울대)	TBA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